

■ 본문

온 4:6-11

■ 시작 찬송가

191, 193, 195장
(통 427, 193, 175장)

■ 헌금 찬송가

276, 278, 280장
(통 334, 336 338장)

▶ 여겨주심

1. 여겨주심의 의미

- 1)생각하다
(시 10:2)
- 2)추정하다
(수 13:3)
- 3)소유하다
(히 8:3)
- 4)판단하다
(요 7:51)
- 5)공홀히 여기다
(시 103:13)

여겨주심의 은혜

누군가가 나를 좋게 여겨줄 때, 내가 하는 말을 귀하게 여겨줄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은혜는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아야 하지만 남들에게 보여 주지 못하는 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여겨주십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겨주심'의 은혜이며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여겨주심의 은혜를 통해서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습니다.

히 4:16 그러므로 우리는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겨주십니다.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본문에서 고집이 드세고, 하나님과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무례함의 모습들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거나 다니엘처럼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주님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잘 하고, 훌륭하고, 능력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아무 능력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좋게 여겨주시고, 심지어는 주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여겨주심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왕상 8:50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도 요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다니며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여,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나를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고, 우리를 사 용하시 고 복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 30:18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 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홀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겨주심

여긴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 인정하거나 생각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주의 깊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여긴다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공홀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긴다는 뜻은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여겨주심의 은혜가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심, 의롭게 여겨주심, 충성되이 여겨주심, 귀하게 여겨주심이 성도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호 2:23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공홀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1. 불쌍히 여겨주심

본문 안에는 두 가지 여겨주심의 은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니느웨를 미워했습니다. 니느웨 안에는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지켜보기 위해 산위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짓고, 잔악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요나가 보기에 우리도 보기에 니느웨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여겨주심은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죄가 많지만 그들을 귀하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시 103:13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의 은혜를 통해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2. 존귀하게 여겨주심

두 번째 여겨주심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경멸하고 증오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볼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멸망하기를 지켜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여기 좌우를 분간하는 못하는 12만명의 니느웨 사람들은 나에게 얼마나 귀하냐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도시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귀하하다. 하나님께서 누가 귀한 사람입니까? 능력 있고, 힘 있고, 사회에서 잘나가고 돈 많은 사람들만 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인들도 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연약한 사람도 귀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귀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 43: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여김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겨줌의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한쪽만 귀하게 여기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존귀함은 양쪽에서 함께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서로 존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행동이 바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예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를 귀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존귀한 사람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 58:13-14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 불쌍히 여기다

1. 불쌍히 여김의 의미

- 1) 사랑하다 (시 18:2)
- 2) 슬퍼하다 (욥 4:10)
- 3) 동정을 가다 (시 72:13)

2.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

- 1) 병자 (마 14:14)
- 2) 귀신 들린 자 (마 15:22)
- 3) 소경 (마 9:27)
- 4) 많은 무리 (마 15:32)

▶ 존귀하게 여김

1. 존귀케 되는 법

- 1)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전 6:2)
- 2) 겸손할 때 (잠 15:33)
- 3) 선을 행할 때 (롬 2:7)
- 4)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히 5:4)

오늘의 한마디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됩시다!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